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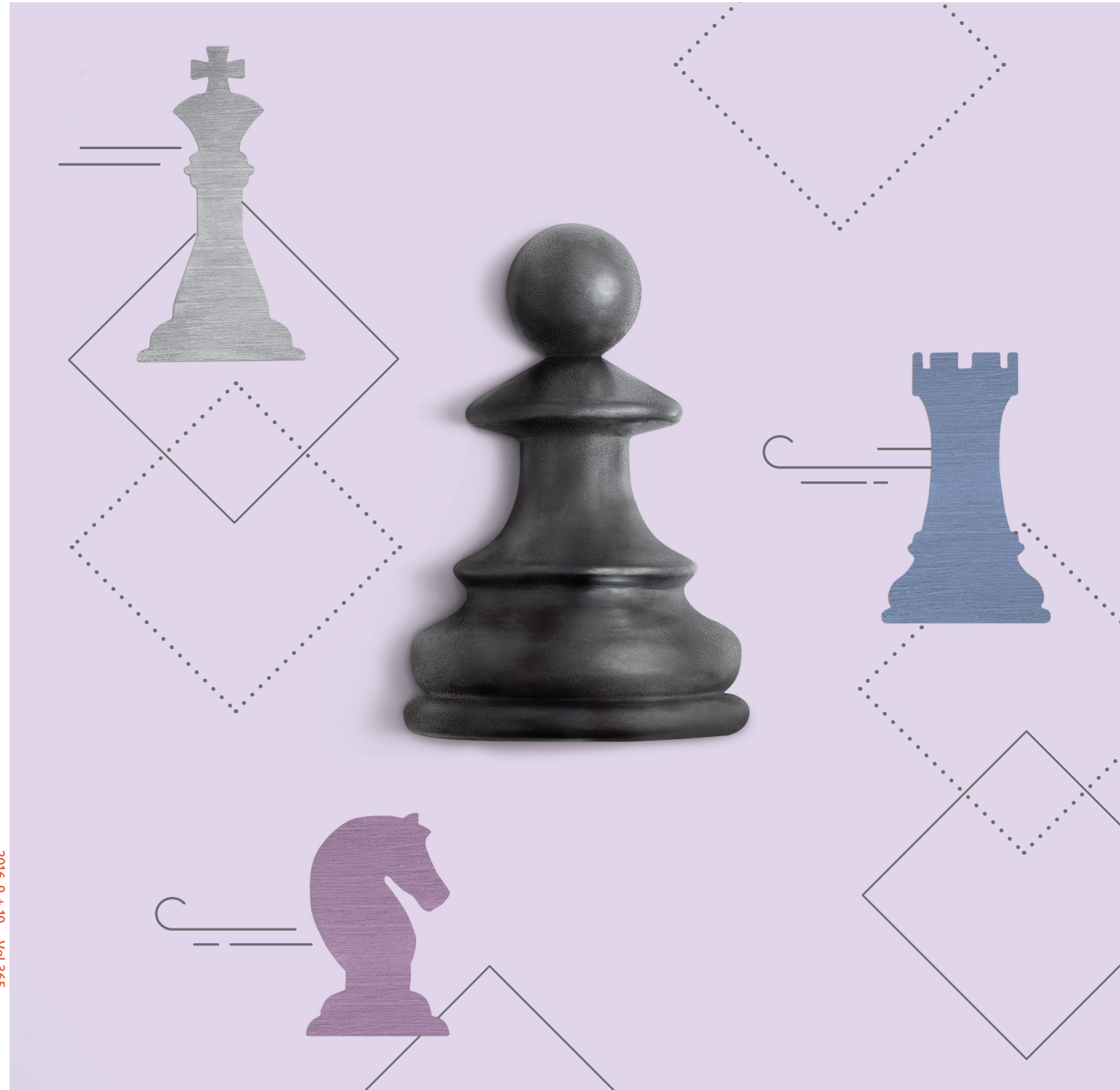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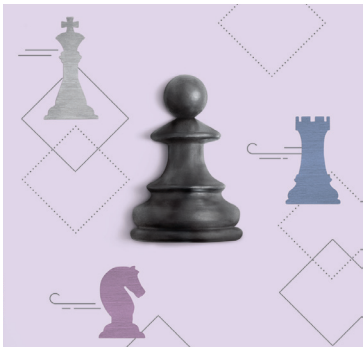
바로 당신이 세아의 주인입니다

누가 시킨 대로,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거나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여 계획과 방침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
 회사의 미래가 곧 자신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해내는 사람
 혼신의 노력을 다해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리하여 내 일(my work)만이 아니라 내일(tomorrow)까지 생각하는 사람
 바로 당신이 세아의 주인입니다.

SeAH

세아의 주인은 바로 나
 주인의식을 갖고 술선수범하며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는 세아





세아의 주인은 바로 나

체스에서 폰(Pawn)은 가장 약한 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폰은 진영을 구축하는 중요한 존재이자 위협을 미리 방어하고 상대의 말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직 전진만 할 수 있는 말. 체스판에서 폰은 ‘의지로서 움직이는 자’를 상징합니다. 전략적인 움직임을 통해 판세를 유리하게 바꾸는 사람, 주저 없이 먼저 한 칸 더 나아가는 사람. 우리가 곧 게임의 승리자이자 세아의 주인입니다.

발행일 2016년 10월 27일 **발행인** 서영범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홍보파트 02-6970-0095 **기획·디자인** (주)더윌호 02-733-0790 **표지** 이기세 작가
인쇄 드림인쇄(주) 02-464-6161 **사진** A one Studio 02-553-4430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SeAH Insight	04	테마 메시지	황금들판 일구는 농부의 마음처럼
	06	테마 인터뷰	리우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김소희 선수
	10	테마 칼럼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주인의식
SeAH Inside	14	세아는 지금	2016 국제철강 금속산업전(SMK 2016)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 세아관(SeAH Hall) 개관 2016 챌린지 리더 과정 수료식
	24	세아 히스토리	세아 역사 속 주인의식
	26	글로벌 리포트	포스세아선재 천진공장 생산기술팀
	30	팀 플레이	세아제강 세아업적상 TF 프로젝트팀
	34	동고동락	기획·경영관리팀 사람들의 만남
	38	함께 가는 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식당 위탁 운영 업체 한빛케터링
	SeAH Interaction	42	도란도란 우리가족
46		행복 레시피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을 밥상, 햇감자 갈치조림
48		SeAH News	
49		People News	
50		Post Box	



황금들판 일구는 농부의 마음처럼

무르익은 곡식들이 넓은 들판 가득 황금 물결을 이루는 계절입니다.
한 해 농사를 성실하게 일군 농부의 마음에도 풍년이 찾아옵니다.
수확의 계절, 먼동이 트는 새벽부터 들녘에 나서는 농부를 생각해봅니다.
해 저무는 무렵까지 논과 밭을 비옥하게 가꾸는 농부의 땀방울을 헤아려봅니다.
날알 하나, 열매 한 알에도 온 정성을 기울이는 농부의 마음을 떠올려봅니다.

진정한 농부라면 가뭄이 닥쳤을 때, 그저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다가올 태풍이 두려워 떨기보다는
하나의 날알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비바람에 맞서 싸웠을 테지요.
남의 논밭에서 일하는 일꾼의 마음과 내 논밭을 가꾸는 주인의 마음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일꾼은 주어진 일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인은 좀더 좋은 결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그 결과에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일꾼은 겨우 일을 끝내고, 다음 지시만을 기다리지만
주인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냅니다.
일꾼의 의무감만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절반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주인의식은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내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건성으로 일하는 일꾼에 비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농부는 분명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닌 주인의식을 지니려면 자신이 직접 회사를 키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아라는 이름의 황금들판을 함께 가꾸는 주인이니깐요.



Profile

서울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해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체육학을 전공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태권도단 소속으로, 2011년 경주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46kg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2013년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같은 체급 2연패를 달성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46kg급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5년 세계태권도연맹 월드그랑프리 시리즈 1차 대회 49kg급 우승에 이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후 리우 올림픽) 태권도 여자 49kg급에 출전해 금빛 발차기를 선보이며 태권도 여제로 등극했다.

강한 끈기로 일궈낸 금빛 승리 리우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김소희 선수

165cm의 키, 49kg의 김소희 선수. 가냘픈 체구의 그녀가 리우 올림픽 태권도 여자 49kg급 결승전에서 금빛 발차기를 선보이며 올림픽 챔피언이 됐다. 태극마크를 달고 있었기에 부상에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국가를 대표한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엿본다.

언제부터 태권도를 시작했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태권도를 배웠어요. 걸핏하면 코피를 쏟을 만큼 허약해서 건강해지려고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도장에 갈 정도로 태권도가 좋았어요. 무엇이든 좋아해야 꾸준히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제게는 태권도가 그랬어요. 한바탕 땀을 흘린 후 씻을 때의 개운함도 정말 좋았죠. 무엇보다 태권도를 하면서 저 스스로가 많이 달라졌어요. 꽤 소심한 편이었는데 태권도를 하고 나서부터 적극적인 성격이 됐거든요. 남들 앞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당당함도 생겼어요.

이번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과정도 궁금합니다.

작년 12월에만 해도 리우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국가당 4명까지만 출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니까요. 이번 대회부터 출전 제한이 풀리면서 체급별로 세계 랭킹 6위 안에 든 선수에게도 출전권이 주어졌어요. 저도 아슬아슬하게 국가대표 선수단에 합류하게 됐죠. 일찌감치 올림픽 출전이 확정된 선수들에 비해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생애 첫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승리의 비결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연습 또 연습이에요. 원래 다른 세계 대회에서는 46kg급이었는데 49kg급에 출전하려고 하니, 진짜 제 체급이 아니라서 상대에게 밀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훈련했어요. 새벽,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눠서 하루 네 차례씩 매일 7시간씩 운동을 했죠. 오전 중에는 트랙을 몇 바퀴씩 뛰고 근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오후에는 발차기 등 기술 위주로, 야간에는 저에게 부족한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마했어요. 먹고 자고 운동하는 게 일상이었죠. ‘올림픽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며 더 이를 악물고 훈련했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도 있지 않나요?

주말에 나가서 영화를 본다거나 친구들을 만날 여유가 없었어요. 몸 관리도 중요하고 혹시라도 부상이 생기면 안되니까요. 태극마크를 달고 8개월 동안 오직 올림픽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지금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죠.



아슬아슬한 접전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우승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기쁘기도 했지만 여태까지 힘들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마구 떠올랐어요. 감격스럽기도 하고 울컥했죠. 사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울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울고, 감독님이나 코치님께 혼나면 또 울고. 그런데 정작 금메달을 땀내자 되려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애국가가 들리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간에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가 봐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떤 마음이 집으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나요?

세계 랭킹 포인트를 따기 위해 한 달 동안 카자흐스탄, 모로코, 크로아티아에서 열리는 대회에 연달아 출전하면서 체급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세 번이나 살을 뺐어요. 일주일 만에 5kg를 빼야 했던 때도 있었어요. 이러다 몸이 망가지는 건 아닌가 싶어 운동에 대한 회의도 들었죠. 여권을 한강에 던져 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특히 저는 금메달이 유력한 다른 선수들에 비해 크게 기대 받지 못하던 입장이라 늘 ‘2~3배는 더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물음표가 떠나지 않아서 마음을 잡기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이제껏 잘해왔다. 잘 할 수 있다’라는 부모님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이번 올림픽을 떠올려 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8강전에서 태국의 파니파크 선수를 만났을 때예요. 세계 랭킹 2위에 워낙 장신의 선수라 상대하기 까다로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선수의 경기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죠. 연습 파트너에게 파니파크 선수 특유의 기술인 전갈차기 공격을 주문하며 2달 동안 꾸준히 연습했어요. 경기 당일, 2:4로 끌려가고 있던 경기 막판에 전갈차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을 제지하고 바로 상대의 상단을 가격하면서 승부를 뒤집을 수 있었어요. 두 달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정말 짜릿했어요.

매일 거친 훈련을 하고, 경기를 치르다 보면 부상도 잦을 것 같아요.

2011년 경주 세계선수권대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다친 상태로 출전했어요. 도핑 테스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취도 할 수 없었죠. 16강전에서 왼손 약지 골절상까지 당했지만 그대로 참고 경기를 뛰었어요. 이번 올림픽 2개월 전에도 부상을 당해서 주사도 맞고 침도 맞았지만 훈련을 계속하다 보니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참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4강전에서 프랑스 선수의 팔꿈치에 정강이를 맞은 후, 다리가 많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어서 압박붕대로 다리를 감고 결승전에 나갔죠. 아프다고 포기하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모두 허사가 된다는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여러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이력이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 금메달은 이전의 금메달과 비교해 남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고3 때 세계 대회에 입상한 후 주변의 기대가 많았어요. 잘할 수 있을까,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어쩌지 하는 고민에 부담감이 컸어요. 이전까지의 메달이 그런 부담감 속에서 얻은 메달이라면 이번 올림픽 메달은 즐기면서 따낸 메달이에요. 부상도 있었지만 이번 올림픽 대회는 비교적 편안하게 시합을 뛰었어요. 국가대표로 처음 출전하는 제 모습을 상상이하면서 즐기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거든요.

김소희에게 국가대표란 어떤 의미인가요?

국가대표를 하면서 운동이 더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국가대표의 타이틀을 항상 왼쪽 가슴에 달고 싶다는 열의가 운동을 더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에서 제가 메달을 따기 전에 닷새 동안 노 골드 행진이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태권도 종목의 첫 금메달인 만큼 꼭 따내고 싶었어요. 제가 첫 출발을 잘해야 뒤이어 출전할 다른 선수들도 기세를 몰아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기도 하고요. 개인의 영광뿐 아니라 태권도 선수단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더 잘하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향후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10월 전국체전과 12월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해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도 있고, 멀게는 4년 뒤 도쿄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어요. 제 자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많은 후배들이 태권도를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합니다.



국가대표의 타이틀을 항상 왼쪽 가슴에 달고 싶다는 열의가 운동을 더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에게 배운다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주인의식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공 기업들은 탁월한 리더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창의적인 성과를 거두며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인의식을 알아본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주인의식으로 무장 P&G



P&G에서는 신입사원 대다수가 인턴십을 거쳐 선발된다. 이들에게는 입사 초기부터 한 분야의 업무에 대한 완전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 회사에서는 이를 '조기 책임제(Early Responsibility)'라 부른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뚜렷한 주인의식을 갖고 중요한 프로젝트의 담당자로서 업무를 도맡게 된다.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큰 기회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 조직과 직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 업무 숙련도가 낮은 신입사원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며, 이는 회사에 손실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 그러나 P&G는 직원의 실수가 회사 수익에 일부 손해를 끼쳐도 이 같은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큰 책임을 맡거나 조직이 자신을 매우 신뢰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개인의 역량은 극대화되기 마련이며 이는 장기적인 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 회사에 대한 애사심은 물론 책임감과 성취감도 자연스럽게 배가된다. 경력 대신 신입사원 선발을 고수하는 시스템은 순혈주의를 고집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사기도 하지만 P&G는 여전히 자기 완결형 업무 경험을 제공하며 구성원의 자기주도성과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업무 자율성 부여하는
ROWE 프로그램
Best Buy



구성원의 DNA에
각인된 기업 의지
UPS



주도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외부의 지시나 규정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 참여는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이 할 일과 방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업무 환경에서 극대화된다. 미국 최대의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 바이(Best Buy)는 근무시간을 설정하거나 구성원이 해야 할 일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어느 회사와는 달리 언제 어디서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ROWE (Result-Only Work Environment)'라는 업무 환경 변화 프로그램을 2003년에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구성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한 출퇴근 시간이나 회의 참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ROWE 프로그램은 구성원이 스스로 자신의 업무 계획 및 방식을 설정하고 일에 몰입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구성원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였다. 이 프로그램은 도입 1년 후인 2004년에 베스트 바이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이 제도를 적용한 팀의 생산성은 다른 팀에 비해 41%나 높았고, 자발적 이직률은 1/9로 감소했다.

갈색 트럭과 갈색 유니폼으로 200여 개국을 총횡무진 누비며, 이른바 '빅 브라운(Big Brown)'이라는 애칭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기억되는 기업. UPS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직원들의 협동과 주인의식이 탄탄히 자리잡고 있다. 세계적인 물류 운송 회사를 향한 기업의 목표와 의지는 UPS 경영진과 직원들의 DNA에 각인되어 있었다. 다른 경쟁 기업들이 고객을 확보하기에만 급급할 때 UPS는 자신들이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고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운송회사라는 점을 설득시켰다. UPS 운송기사들은 자신이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상징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들은 전문적인 외모와 태도를 갖추기 위해 복장과 에티켓에 신경 썼고 고객들 사이에서 다른 대부분의 운송회사들과 달리 청결하고 전문적인 회사라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또한 UPS는 이직률이 낮기로도 유명한 회사이다. 전 세계 UPS의 전임 매니저 이직률은 겨우 8%에 불과하다. UPS 본사의 경영진들은 평균 재직 기간이 32년이나 될 정도로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고 있는 사이이며, 많은 고위 간부들이 UPS의 시간제 운전자로 출발했다. 이처럼 충성도 높은 직원들의 참여와 헌신 속에서 초기 자본금 100달러로 시작한 작은 메신저 회사, UPS는 세계 최대 규모의 특송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

주인들의 회사를 만든
오너십 경영
SRC



1982년, 잭 스택(Jack Stack)은 12명의 동료와 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던 모기업으로부터 엔진 재생공장을 인수하고 오너십 기업 문화 창조를 위한 경영 혁신을 시작했다. 오너십 기업 문화란 말 그대로 종업원들이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기업을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잭 스택은 모든 직원이 주주로서 회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종업원들의 회사'가 아닌 '주인들의 회사'를 만들었다. 주주가 된 SRC의 직원들은 회사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했다. 그들은 출근부에 도장을 찍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원대한 목적을 위해 일하며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으로 변화했다. 직무기술서에 적힌 대로 주어진 일만 하던 사람들이 회사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됐다. 자신들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더 많은 열정과 헌신, 창의성을 끌어냈다. 그 결과 설립 초 10센트에 불과했던 회사의 주식 가치는 81.6 달러로 크게 올랐다. 대표적인 직원의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몫은 1984년 초 50달러에서 1986년 중반 약 2만 3천 달러로 증가했다. 당시 SRC가 위치한 미저리 주 스프링필드의 평균 집값이 4만 달러였던 것에 비추어보면 이 금액은 상당한 것이었다. 잭 스택은 SRC의 오너십 기업 문화를 '위대한 비즈니스 게임(The Great Game of Business)'이라고 명명했으며, 이 위대한 게임을 배우기 위해 포춘 500대 기업을 포함하여 수많은 회사들이 SRC를 방문하고 있다.

지금처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는 경영진 또는 소수의 리더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루기는 어렵다. 구성원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진정한 주인의식은 회사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다.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주인으로서의 책임감, 회사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금속산업의 미래

2016 국제철강 금속산업전(SMK 2016)

철강 금속업계의 축제 ‘2016 국제철강 금속산업전(SMK 2016)’이 지난 9월 27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국내외 철강 및 금속업계 200여 개사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에 세아는 ‘The Steel Wave’란 주제로 참여해 그룹 및 제품 홍보에 나섰다.



2년 만에 열린

국내 최대 철강 금속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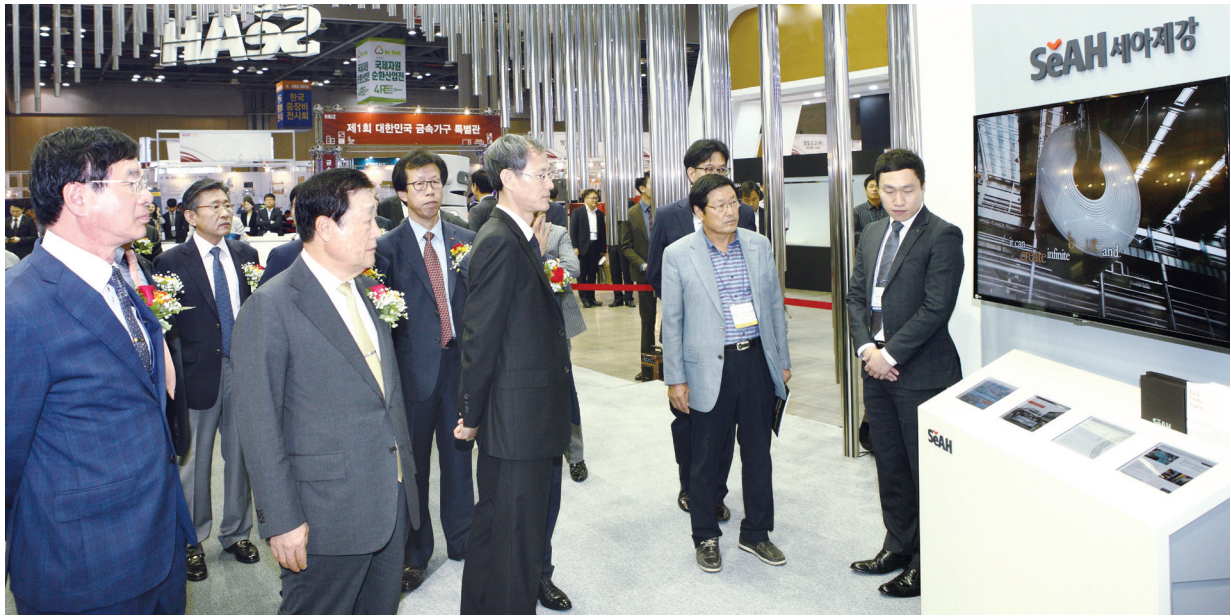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철강 금속 국제 전시회인 2016 국제철강 금속산업전(이하 SMK)이 개최됐다. 이는 2010년 1회 개최 이후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철강 금속업계는 물론 수요 및 연관 산업 종사자들과 학계 관계자, 해외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하는 그야말로 업계 최대 행사이다. 취재 카메라가 모여든 가운데 SMK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거행됐다. S&M미디어의 배정운 회장을 필두로 포스코 이덕락 전무,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조시영 이사장, 세아베스틸 윤기수 대표 등 14명의 개막식 멤버들이 차례로 소개됐다. 이들이 테이프를 자르자 힘찬 박수가 쏟아지며 화려한 축제의 막이 올랐다.

철강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개막식 주요 인사

들은 1만 5,714m² 규모의 전시회장을 돌아본 후 오찬을 함께하며 이번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S&M미디어의 배정운 회장은 개막인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보고 느끼고 학습하는 시골벽적인 잔치집 같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SMK를 규모보다는 내용에 집중한 알찬 전시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스코 이덕락 전무도 이번 전시회에 대해 ‘철강 및 비철 금속 소재 산업의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하며 유관 기업 및 기관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시회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찬장에 모인 업계 주요 인사들은 기념 행사를 더욱 풍요롭게 채운 만찬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전시회의 번영과 성공을 기원하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만남의 기회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금속산업의 미래’. 침체된 철강 금속산업의 국내외 마케팅 효과 극대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많은 업체들이 모여 뜻을 함께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7%대 고속 성장의 인도, 경제 제재 해제로 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이란 및 캐나다 등 다양한 나라의 주요 산업 유관 기관들이 참가해 새로운 마케팅과 소통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KOTRA가 주관하는 수출구매 상담회는 참가 업체와 수요 고객 간의 만남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신고객 확보를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주조산업의 가치 사슬 활력 제고’ 세미나를 비롯해 철강·비철금속 업종별 세미나, 수요 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학술 행사도 열려 산업계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차별화된 독립 부스로 이목 집중

세아는 독창적인 전시 디자인과 차별화된 콘셉트를 갖고 관람객 맞이에 나섰다. 세아는 이번 전시회에 세아제강과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세아FS, 세아 ESAB, 세아메탈, 세아 M&S 등 총 8개가 공동 참여해 ‘The Steel Wave (철과 같은 강직한 마음이 모여 이룬 유연한 변화의 물결)’이란 주제로 전시관을 꾸몄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천장에서부터 와이어로 고정하여 내려오는 수 백개의 강관. 강철과 같은 신념을 품은 세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만드는 세아의 이미지를 물결의 모습으로 시각화했다. 전시관 전체를 감싸안은 듯한 강관의 물결은 세아의 제품을 활용하여 구성되었으며,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세아에 대한 부드러운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전달했다.

다채로운 미디어 홍보와 이벤트

세아 전시관은 그룹 이미지 존과 계열사 존으로 구성됐다. 먼저 세아 전시관의 랜드마크인 미디어 타워는 LED 패널을 활용하여 그룹사 사업장에서 촬영해온 화면과 소리로 제작된 3편의 ‘철의 울림’ 영상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그룹 이미지 존에서는 세아의 스토리, 역사, 핵심가치 및 CSR 활동 영상 등을 통해 세아의 면면을 소개했다. 계열사 존은 세아그룹 대표 8개 계열사를 소개하는 섹션으로, 각 계열사마다 46인치 TV 패널을 설치하여 공정, 설비 등의 모습을 영상으로 선보였다. 또한 태블릿 PC를 통해 관람객들이 각 사의 제품 이미지와 제품 브로슈어 등 원하는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세아는 노트북 가방, USB, 텀블러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롤렛 이벤트와 세아의 핵심가치 캐릭터인 세론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세아의 물결, 더 널리 퍼져나갈 것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8개 계열사는 자사의 강점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성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세아제강 영업3팀 한정우 대리는 ‘세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 세아의 역량을 방문객에게 제대로 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전시 참여의 의의를 밝혔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봉강 제품보다는 대형 단조 및 선재 등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제품을 홍보하여 새로운 고객을 개척하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세아베스틸 글로벌마케팅팀의 황재표 과장은 제품 홍보 영역을 넓혀 세아베스틸의 인지도 및 판매량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세아창원특수강 서준영 차장은 ‘그룹 편입 후 처음으로 함께하는 전시인 만큼 세아창원특수강이 세아의 가족임을 일반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세아의 일원으로서의 연대감 고취에 무게를 두었다. “그룹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오늘 와서 보니 생각보다 계열사가 많아서 놀랐어요. 다른 전시관에 비해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줘서 세아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신소재를 전공한다는 대학생 참관객은 세아 전시관을 둘러본 후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관람객은 ‘세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성장해갈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세아의 전시관 홍보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세아에게 이번 전시는 그룹 이미지와 각 계열사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전시회 참여를 통해 관련 업체와 교류하며 세아의 물결은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아름다운 선율로 물드는 창원의 가을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창원에 예술의 향기가 더해졌다.

이운형문화재단은 지난 10월 12일 창원시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를 열고 창원 시민을 120여 분간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 속으로 초대했다.

이운형문화재단의 세 번째 지역 음악회

이운형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가 문화예술특별시 창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군산, 충주에 이어 세 번째 지역 음악회다. 이운형문화재단은 세아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음악회를 개최해왔다. 이날 공연에 앞서 안상수 창원 시장과 이운형문화재단 박의숙 이사장, 이태성 세아베스틸 대표, 이지용 세아창원특수강대표는 간단한 티타임을 갖고 창원시 문화예술 활성화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재단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세계적 아티스트와 재단 인재들의 협연

음악회의 1부는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와 ‘라트라비아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비제 ‘카르멘’ 등 유명 오페라 속 대표적인 아리아 곡들로 구성됐다. 1,700석 규모의 관객석이 가득 메워진 가운데, 아시안 클래식 플레이어즈(Asian Classical Players)의 ‘폴로네이즈’ 연주로 음악회가 시작됐다. 이어 소프라노 박현주, 바리톤 한명원,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호소력 깊은 열창과 전율이 가득한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숨죽이게 했다.

또한 이날 공연은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들과 이운형문화재단 후원 인재들이 함께하여 더욱 뜻깊은 무대로 꾸며졌다. 특히 1부의 마지막 순서에는 재단이 후원하는

3명의 테너, 김승직, 박기훈, 신현식이 함께 공연하며 이날 행사에 특별한 감동과 의미를 더했다. 이번 음악회의 지휘를 맡은 데이비드 이(David Yi) 역시 재단이 후원하는 인재로, 세계적인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에게 역량을 인정받은 아티스트이다.

화려한 무대와 뜨거운 관객 호응

음악회의 2부는 ‘오페라의 유령’, ‘아이다’, ‘맘마미아’ 등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뮤지컬 작품 속 대표곡들로 구성됐다. 국내 최정상 뮤지컬 배우인 차지연, 임혜영, 윤영석과 뮤지컬 퍼포먼스팀 ‘더뮤즈’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흥겨운 퍼포먼스로 공연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관객석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회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감사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부 공연의 중반 무렵, 뮤지컬 배우 차지연은 이렇게 말하며 관객들에게 박의숙 이사장을 소개했다. 객석 가운데, 하이라이트 조명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난 박의숙 이사장은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관객들은 일제히 힘찬 박수로 화답했다. 이운형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음악회 개최를 통해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며,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반세기 역사와 100년 비전을 담은 기업 역사관 세아관(SeAH Hall) 개관

세아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난 10월 10일, 두 달여간의 리뉴얼 공사를 마친 세아관은 대한민국 철강 역사를 이끌어 온 세아의 과거를 보존하고 현재를 기록하며 미래의 성장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세상을 향한 깊고 큰 울림

세아타워 4층이 세아의 지난 반세기 역사와 앞으로의 100년 비전을 담은 기업 역사관, 세아관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새로운 세아관 전체를 아우르는 콘셉트는 ‘철의 울림(Resonance of Steel)’.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세아의 기업 가치가 깊고 큰 울림이 되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아는 그룹의 주력 사업인 철강업의 특성을 세아관 곳곳에 반영했으며, 세아 고유의 컬러와 주요 제품을 활용하여 기업 역사와 핵심가치, 비즈니스 경쟁력, 사회공헌 활동 등을 감각적으로 재조명했다.

56년 세아의 이야기가 한자리에

세아관 한 편에 마련된 블랙 미러(Black Mirror)는 역대 회장님들의 핵심가치 어록과 함께 인트라넷을 통해 공모한 ‘세아인들이 생각하는 핵심가치’를 소개한다. 블랙 미러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벽면 위에 조명과 그림자를 활용하여 세아인의 3대 핵심가치를 모던한 감각으로 선보이는 한편, 부식 철판으로 제작한 세아제강 최초의 롤 이미지를 좌측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철강산업 선구자로서의 자부심을 담아내고 있다. 시대순으로 구성된 92장의 사진은 1960년 부산철관공업으로 시작하여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이끄는 지금의 세아가 있기까지의 여정을 한눈에 보여준다. 터치 모니터를 비롯해 사보, 간행물, 옛 사료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 지난 56년간 차곡차곡 쌓여온 세아의 이야기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다.

다채로운 미디어와 감각적 조형미

세아관 입구에 들어서면 세아의 강관 제품을 활용한 웅장한 조형물이 눈에 들어온다. 이 조형물의 중앙 모니터는 터치 스크린과 연동되어 ‘철의 정직, 철의 열정, 철의 실력’의 영상을 선택하여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각 영상은 전국 사업장에서 촬영해온 현장의 모습과 소리를 담고 있어 청각적, 시각적인 생동감을 선사한다. 세아관 중앙에 자리잡은 삼각기둥 형태의 대형 미디어 타워는 세아의 아이덴티티와 장인정신 영상 등을 차례로 상영한다. 여기에 천장부터 내려오는 상들리에 느낌의 강관은 공간에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글로벌 네트워크 패널은 10개국 30여 개의 해외 법인을 통해 전 세계 고객을 만나고 있는 세아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준다. 특히 ‘세아 뷰티풀 로드’는 각 계열사 및 ‘생활 속 세아’의 스토리가 담긴 카드를 키오스크에 꽂은 후 조그 다이얼로 페이지를 전환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아의 면면을 좀더 흥미롭게 들여다볼 수 있다.

세아를 알리고 공유하는 문화 공간

세아관의 새로운 탄생을 기념하는 깜짝 이벤트도 마련됐다. 10월 10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세아관을 방문한 임직원에게는

라이징 커브가 그려진 쿠키가 제공됐다. 세아관을 둘러본 세아인들은 ‘공간 곳곳에 세아의 철학과 신념이 스며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세아관은 방문 고객을 상대로 회사의 철학, 가치, 경쟁력을 알리는 홍보의 장(場)이자, 내부 임직원들이 세아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학습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될 계획이다.





세아의 혁신을 견인할 차세대 리더 양성 2016 챌린지 리더 과정 수료식

지난 9월 30일, 2016 챌린지 리더 과정 수료식이 진행됐다. 이날 세아타워 31층에 모인 세아의 차세대 리더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 서로의 발전된 모습을 확인하고, 향후 세아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 인재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리더 역량 강화 위해 차별화된 교육

챌린지 리더 과정은 세아의 핵심 인력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각 사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해 리더로서 갖춰야 할 종합적 사고력과 현업 실천력을 중점적으로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10개사에서 22명의 인재가 선발됐으며, 이들은 지난 2월 25일부터 9월까지 총 6개월에 걸친

교육 과정에 참여해 리더의 기본 역량 및 문제해결 역량의 단계별 학습과 현업 개선 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9월 초에는 선진기업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혁신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3박 4일에 걸쳐 일본 교토-나고야 일대의 기업 탐방에도 나섰다. 올해 챌린지 리더 과정은 교육 기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여 몰입도를 높였다.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시키는 퍼실리테이터형 리더의 역할을 인식하는 시간도 새롭게 추가됐다. 조별 워크숍 방식의 학습 및 과제 수행, 조별 전담 코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각 사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과제 발표회를 통해 과제에 대한 실질적 평가 및 현업 참여도를 높였다.



직군별 다른 시각, 같은 의지

세아홀딩스 인재개발파트 이규웅 파트장이 그간의 교육 경과를 보고하며 수료식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챌린지 리더들의 교육 과정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이주성 전무를 비롯해 그룹 계열사 인사 임원 및 팀장들이 참석했다. 이후 직군별로 수행한 해외기업 탐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연구개발, 생산, 영업&마케팅, 경영관리의 직군별로 편성된 각 조 구성원들은 저성장기를 극복한 일본 내 혁신, 장수, 강소기업 총 12개사를 방문했으며, 이들 기업 사례를 통해 도출한 성공 노하우 및 시사점, 현업에서

적용 가능한 사항 등을 차례로 발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세아베스틸의 김성호 과장은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실패에 대한 질책보다는 도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이 필요한 때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생산부문 발표자인 세아베스틸의 권태영 대리는 기업 탐방을 통해 혁신기업이 강소기업이고, 곧 장수기업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영업부문의 세아제강 김용훈 대리는 '상인에게 호황, 불황은 없다'는 일본식 경영의 창시자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글귀를 인용하며 영업사원으로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영관리부문의 세아 FS 박준우 과장은

해외 기업들이 세아의 혁신 사례를 배우러 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성공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직군별로 조금씩 달랐지만 직원들의 마음가짐이야말로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것에 7기 챌린지 리더들은 뜻을 함께했다.

서로 벤치마킹하며 세아의 발전 견인할 것

이번 수료식에서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성실한 교육 태도와 뛰어난 문제해결 역량을 발휘하며 탁월한 개선 과제 성과를 거둔 챌린지 리더에 대한 최우수 과제 시상식도 실시됐다.

세아베스틸 2차가공팀의 권태영 대리, 공정연구센터 김성호 과장과 세아특수강생산팀의 금기철 과장, 세아제강 서울영업1팀의 김용훈 대리, 세아 M&S 물류운영팀의 신명균 과장, 세아 FS 경영관리팀의 박준우 과장까지 총 6명이 종합평가 A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과제 상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신명균 과장이 7기 챌린지 리더를 대표해 수료증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6개월간 동고동락하며 세아의 차세대 리더로 거듭난 22명의 인재들. 이들이 서로를 벤치마킹하며 세아의 혁신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56년 발자취에 고인 땀과 헌신 세아 역사 속 주인의식

오늘의 세아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온갖 노력을 기울여온
선배들의 주인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술선수범의 자세와 자발적 참여,
자기주도적 혁신을 위해 힘을 쏟았던 지난날 세아인들의 발자취를 되짚어본다.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해암



성장을 일군 주역들



부산철관공업의 수동 절단 공정

고난과 역경도 불사하는 술선수범

1966년 부산철관공업(현 세아제강)이 예미화학을 인수하며 카바이드
사업에 정식 진출했을 당시, 해암은 공장 건설을 직접 진두지휘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리국수 한 그릇으로 요기를 하고 청계
천에서 부속품을 구입하여 야간열차에 싣고 내려가는 일도 수십 차례.
해암의 관심은 부속품 하나라도 더 싣고 가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회사
를 위해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의 술선수범 정신은 오늘날 세
아 고유의 문화로 깊숙히 스며들었다.

1974년 초, 부산파이프(현 세아제강) 수출 담당이었던 김시원 사원은
신규 고객을 찾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온통 아랍어 투성
이인 공항에서 그는 연달아 비행기를 놓치기도 하고, 음식을 금하는 라
마단 기간 탓에 허기와 무더위를 견뎌야 했다. 피로와 긴장 속에서 그
는 결국 기절하고 만다. 이후 브라이다 은행에서 일하는 압둘 마두흐
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린 그는 은행 지점장을 소개받는다. 그는 마을
잔치에 초대되어 지역 유지들을 상대로 부산파이프 서울공장의 1년치
판매량을 모두 팔아치웠다. 회사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사명감
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초창기 임직원들의 헌신

부산철관공업의 초기, 열악한 생산 여건과 미숙한 작업 능력으로 인한
시행착오 등 임직원들은 갖가지 어려움에 봉착했다. 설비 부족으로 공
정의 대부분을 수작업에 의존해야 했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전, 임
직원들은 제품 출하를 위해 우마차와 소달구지를 총동원하고 철도 배
차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제품 출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면
그날 판매량, 재고량을 장부에 정리했다. 연일 야근이 이어졌다. 그럼

에도 강관의 국산화를 선도한다는 자부심과 금지로 무장한 부산철관
공업의 임직원들은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고, 이들
의 노력 덕분에 부산철관공업은 KS마크 획득과 국내 최초 강관 수출의
개가를 올릴 수 있었다.

헌신적인 종업원들의 노고에 보상하듯 해암은 1969년 5월 13일 주식
상장과 함께 사원지주제를 도입했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사원지주
제는 사원들에게 애사심을 갖고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회사 성장의 토대 마련한 주인의식

‘직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회사’라는 주인의식은 기술력 부족과 시장
경쟁력 미흡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세아특수강을 건설한 회
사로 거듭나게 했다. 임직원들의 주인의식은 ‘JS 한마음 경영혁신 운
동’으로 표출됐다. 1994년 ‘JUMP! SeAH’를 슬로건으로 시작된 이 운
동에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크고 작은 낭비를 제거했고, 이
에 힘입어 세아특수강은 1999년 112억 원 흑자 전환을 이뤘다.

세아 ESAB이 그동안 이루어낸 혁신과 경영 성과는 구성원 모두가 하
나라는 공동체 의식이자 세아 ESAB 고유의 문화인 ‘한길 한가족’ 정신
과 궤를 같이한다. 초창기 5S(정리 · 정돈 · 청소 · 청결 · 습관화) 활동
부터 최근의 카이젠 활동까지 세아 ESAB은 노사 일체감과 주인의식
함양을 요체로 하는 한길 한가족 문화를 통해 기업 성장의 토양을 일궜
다. 아울러 전 임직원은 한가족 생산회의, 한마음 100일 운동 등에 자
발적으로 참여하며 세아 ESAB의 성장을 이끌었다.

제도를 통한 참여 의식 강화

1997년 1월, 포상제도를 개선하여 경영실적이 가장 우수한 회사의 대
표이사를 치하하는 세아경영대상이 제정됐다. 이후 창의적인 경영 활
동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그룹 발전에 기여한 회
사의 대표들이 해마다 경영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세아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변화를 주도해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
을 도모하여 그룹 발전에 기여도를 높이고자 세아업적상을 제정, 1998
년 1월 첫 시상식을 가졌다. 한 해 동안 기술개발 · 관리 · 생산 · 영업
부문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세운 개인 및 단체의 공적을 심사하여 공헌
도에 따라 대상, 금상, 은상, 특별공로상이 수여됐다. 2016년 19회를 맞
이한 세아업적상은 더욱 강화된 심사 기준으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임
직원들에게 주인의식과 참여 의식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세아특수강 JUMP SeAH 한마음 경영혁신 운동



세아 ESAB 5S 운동 추진 결의대회



세아업적상 수상



위기 극복의 원동력은 투철한 주인의식

포스세아선재 천진공장 생산기술팀

국내 수요 정체에 따른 성장성 확보를 위해 천진에 진출한 지 꼬박 2년. 포스세아선재(천진)유한공사(이후 포스세아 천진 공장)의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화북 지역 최고의 냉간압조용선재(CHQ Wire) 전문 회사를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포스세아 천진공장. 그곳 생산기술팀에서 보내온 소식을 전한다.

글 포스세아선재 천진공장 생산기술팀 김진한 팀장

탁월한 입지 환경의 천진개발구에 자리해

안녕하세요. 포스세아 천진공장 생산기술팀의 김진한 팀장입니다. 사보를 통해 세아 가족들에게 천진공장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포스세아 천진공장은 중국 화북 지역 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세아특수강과 포스코가 합작 설립한 두 번째 해외 생산거점입니다. 약 1년여간의 건설 기간을 거쳐 2014년 10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한 포스세아 천진공장은 천진공항에서 40km, 북경공항으로부터 90km, 천진항에서 70km 거리에 위치한 국가급 개발구인 천진개발구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진개발구는 탁월한 접근성과 인프라 환경 외에도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인력 공급이 원활하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현재 포스세아 천진공장에는 운한민 공장장을 비롯한 사무기술직 13명, 기능직 47명 등 총 60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생산 관련 업무 총망라

생산기술팀은 저를 비롯한 4명의 사무직과 38명의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력 제품인 냉간압조용선재(CHQ Wire)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8월 천진공장 시운전 때부터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생산 효율 극대화와 품질 안정화를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함께한 Gujianwei 부장은 Production Manager로 생산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신규 개발품 진행과 같은 팀의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Liruishi 대리도 2014년에 입사하여 품질 데이터 통계, 품질 향상 및 유지 관리, 기술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 입사한 Liusiji 사원은 공정 관리, 인원 운영 계획, 생산 관련 문서 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진공장은 연간 3만 톤의 CHQ Wire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천진공장의 월 평균 생산량은 1,400톤을 넘어섰으며, 2016년 생산 목표는 2만 톤, 내년에는 3만 톤 생산을 목표로 품질과 납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화북 지역 자동차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증설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통공장과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천진공장은 중국 현지 직원 간의 교류를 통해 남통공장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하며 여느 해외 법인보다 빠르게 안정화를 이루었습니다. 벌써 9년째 운영되고 있는 남통공장의 현지 운영 노하우 덕분에 천진공장 설립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현재도 남통-천진공장의 생산기술팀은 인터넷 채팅방을 개설하여 현장 직원들이 상호 개선점과 해결 방안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화동 및 화남 지역은 남통공장에서, 화북 지역은 천진공장에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회사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신속한 납기와 품질 대응이 가능해져 고객들로부터 호평도 얻고 있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는 주인의식

2014년 8월 초, 산세 공정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운전 방식으로 정상 가동이 지연되며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답답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밤낮을 가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윤한민 공장장과 저희 현지 직원들이 뚝뚝 뚫쳐 2~3일간 대화하며 설비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엉켜있던 문제들이 차츰 해결되고 마침내 정상 제품이 생산되던 순간, 그때의 성취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21일 새벽에는 단시간에 300~400mm가량 쏟아진 큰 비로 공장에 빗물이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상연락망이 가동됐고 새벽 시간임에도 대부분의 사무실 직원들이 공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직원들이 공장 입구마다 배수 작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직원들 스스로 움직여서 주인의식을 발휘한 그 순간이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고, 이러한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위기 극복과 조기 안정화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시장은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생존 경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쟁사가 강소성 내에서 사업을 개시하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였습니다. 지난해는 한국과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판매가 급감하면서 천진공장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공장 전체가 사활을 걸고 정상화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다행히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아 천진공장은 정상 가동 1년여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4분기 최대 생산, 최대 판매 달성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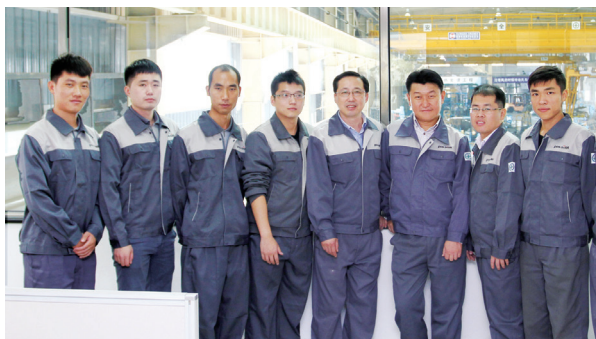
올해 천진공장 생산기술팀은 2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량 기준 전년 대비 100% 성장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며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올해 중국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7~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글로벌 고객을 상대로 판매량이 늘면서 4분기에는 최대 생산, 최대 판매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핵심 목표는 안전사고 제로입니다. 2014년 천진공장 설립 이래, 단 한차례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 직원은 이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진공장에서는 철저한 정신 교육과 설비 예방 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천진공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품 CHQ Wire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늘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여 고객이 스스로 찾게 하는 회사, 어떠한 불황이나 강한 경쟁 상대가 있더라도 최후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회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천진공장에서는 내부 품질 TFT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고객사 방문을 통해 우리의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화북 지역 최고의 냉간압조용선재(CHQ Wire) 전문 회사를 향해 앞으로도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세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세아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을 세아인 여러분, 모두가 파이팅입니다.





대한민국 강관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다 세아제강 세아업적상 TF 프로젝트팀

24인치 고강도 송유관을 80피트 길이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전 세계에서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세아제강이다. 대한민국 강관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그은 사람들. 7명의 세아업적상 수상자를 만나고 왔다.

세상에서 가장 긴 강관 생산 시스템

미국 외 세계 최초 24인치 80피트 송유관 생산 설비 구축 및 국내 최장척 강관 미국 수출의 놀라운 성과. 설비기술팀의 임종표 부장과 정기용 대리, 생산2팀의 박문선 부장과 최상수 차장, 윤대근 대리, 기술연구소의 권순규 과장, 이희재 담당을 비롯해 수출 및 품질경영 팀원들이 함께 이뤄낸 일이다.

“강관의 생산 길이를 증대하여 80피트(24m)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80피트는 미국 영토 내 운송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강관의 최장 길이지요. 기존에 생산 가능했던 강관의 최장 길이는 60피트(18m)였습니다.”

1996년, 포항에 24인치 송유관 공장을 지을 때 세아제강에 입사한 임종표 부장. 그에게 약 20년 만에 그 공장을 증설하고 업그레이드하여 세계적인 공장으로 변신시키는 일은 유독 뜻깊은 일이었다.

송유관 구매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 대처

북미 Midstream(원유 운반 및 저장 처리) 업체들 사이에서 공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더 긴 송유관 제품에 대한 구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제품 길이가 길수록 공사 현장에서 강관끼리 연결하는 작업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사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이다. 미국 Plains사가 오클라호마 커싱 지역에서 테네시 주 멤피스까지 720km를 잇는 송유관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 대륙 지도에 강관으로 선을 긋는 그야말로 대규모 공사였기에 80피트 강관 제조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지난해 5월, 설비 투자 검토에 대한 접수 1개월만에 투자가 결정됐다. 비록 Plains사의 공사가 유가 하락으로 지연되었지만 미국 5대 Midstream 업체인 Energy Transfer의 새로운 수주로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세아제강에서 생산한 80피트 송유관이 Energy Transfer에 1만 8,830톤이나 팔려나갔다. 단일 수주로 일궈낸 성과다.

세아업적상 수상은 집안의 자랑거리

매출 규모뿐만이 아니다. 품질 관리 수준, 기업 신뢰도, 제조 기술과 설비 능력, 인적 구성 등 파이프 제조에 대한 모든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은 것. 팀원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들은 올해 초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은상도 품에 안았다.

“세아에 오래 근무해도 받기 어려운 상이라며 선배들께서 축하해 주셨어요. 세아의 일원으로서 회사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입사 4년 차 이희재 담당의 소감. 수상한 지 반년이 지났어도 기쁨의 크기는 그리 줄지 않았다.

“집안의 자랑거리가 생겨서 좋아요.” 입사 후 첫 입상은 정기용 대리에게도 커다란 영광. 프로젝트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던 권순규 과장은 ‘지난해 여름 함께 고생한 팀원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며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임을 강조한다.



거의 모든 공정을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

“차라리 공장을 새로 짓는 편이 더 편했을 거예요.”

임종표 부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 건물 허가 및 증축부터 면취 및 검사 등 후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설비 개선, 생산 효율 증대를 위한 설비 레이아웃 재구성과 출하-적재-운반-선적-이송으로 이어지는 물류 프로세스 및 품질 기준 재정립까지. 거의 모든 공정에 큰 변화가 필요한 일이었다. 제품 길이가 길어진 만큼 설비를 연장하고, 불합리한 설비는 제거하여 생산공정의 불필요한 흐름을 최소화했다. 크레인 없이도 공정별로 제품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품 출하 효율성을 높였다.

설비 투자 검토로부터 생산 완료된 제품을 선적하여 미국 휴스턴항으로 출항하기까지 고작 6개월. 모든 것이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7월부터 시작된 공장 증축 공사와 설비 공사가 1.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그사이 공장 가동을 멈춘 기간은 단 3주. 여름 휴가 기간을 빼면 2주 밖에 되지 않는다. 기존에 받아 놓은 수주 물량을 적기에 납품해야 하기에 공사를 이유로 공장 가동을 마냥 멈춰 세울 수 없었다.

이희재 사원과 정기용 대리는 설비 도면, 레이아웃 개선 등에 필요한 실측을 위해 매일 공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비들을 기록하고 측정했다. 건물 공사와 설비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포크레인 8대와 덤프트럭 10대, 200명가량의 사람으로 공장 안은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 무더운 날씨 속에 밤을 꼬박 새우는 날도 부지기수였다.

강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사명에 도전할 것

“2015년 9월 22일 오전 8시 27분” 첫 80피트 제품이 포장되어 나오던 시각을 윤대근 대리는 여전히 잊지 못한다. 그야말로 고생이 꿀 같은 결실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지난해 Energy Transfer의 성공적인 납기에 이어 연기되었던 Plain사의 공사도 올해 초에 진행되며 1만 2,100톤가량의 송유관이 추가로 판매됐다. 경쟁사보다 한발 앞선 시스템 구축과 제품 생산으로 세아 브랜드를 각인시키며 향후 수익성 증대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 모두 투철한 사명감과 주인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제가 하는 일이 향후 20~30년간 세아제강의 먹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그 길을 향한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세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지요.”

권순규 과장은 이렇게 말하며 ‘세아의 미래와 나의 미래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6개월 동안 하나의 팀으로 모여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불태웠던 이들은 이제 새로운 역할을 맡아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다. 프로젝트 당시 기술연구소 소속이던 임종표 부장과 정기용 대리는 설비기술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뜨거운 여름과 싸우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끈끈해진 이들의 유대감은 여전히 변함없다. 단기간 내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낸 강한 추진력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큰 역량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지은 지 20년 된 공장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장으로 탈바꿈했듯이 말이다.



전략도 애사심이 기본이 됩니다 기획·경영관리팀 사람들의 만남



유독 크고 무겁다.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업무는 담당자들에게 남다른 크기와 무게의 사명감을 요구한다. 회사의 생존과 성장, 발전 방향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전략가이자 책임감도 애사심도 결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세 사람. 기획·경영관리팀 담당자들을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주인의식에 대해 듣는다.

세아에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맡고 계신 업무는?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 문병갑 과장(이하 문) 2006년에 입사하여 올해 1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부서라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예산, 경영 보고, 전략회의, 공시, 주주총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간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경영관리팀 이동혁(이하 이) 2012년 6월, 경력직으로 세아제강에 입사했습니다. 경영혁신팀을 거쳐 현재는 경영관리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판재사업부 투자·관리, 전사 운영예산 총괄, IT투자 및 프로세스 개선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 박영준 대리(이하 박) 저는 2010년 12월에 입사하여 만 6년간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업 계획 및 예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경영실적을 보고하는 설명회 자료 작성 외 기타 다양한 보고 자료와 이사회 및 사규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획·경영관리 업무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문 기획 업무에는 회계, 재무,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전문 지식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법률이 수시로 개정되거나 신설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업무 특성상 영업, 생산 등 전 부서와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타 부서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회의를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면 사전 스케줄링부터 당일 일정, 논의 사항 등 챙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곤 합니다. 또한 대내 환경을 고려하여 회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이다 보니 일에 대한 중압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제가 분석 및 작성한 자료가 바로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박 다양한 업무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고되는 자료들을 검토하고 관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됩니다.

자신만의 업무 노하우는?

문 스케줄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간혹 업무가 몰린 다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긴급한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정기적인 업무는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습관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진행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급작스럽게 요청되는 업무의 빈도가 높고, 그런 업무의 경우 대부분 제출 기한도 매우 짧기 때문에 사전에 스케줄을 잘못 관리할 경우 업무 전체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저 역시도 시간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기적인 업무는 10~20분씩 투자하여 미리 조금씩 진행하는 것이 시간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획·경영관리 담당자로서 각자 생각하는 주인의식은?

문 동료와 회사의 가치를 인정하며 애사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비로소 회사의 발전을 위해 주인처럼 노력하게 될 테니까요.

이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과 봉사하는 마음 없이는 자칫 대가성의 그릇된 주인의식, 애사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무조건 내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창한 말보다는 회사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본인이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자체가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강산업 전반의 장기화된 저성장 속에서 남다른 각오가 있다면?

문 항상 잘해야 한다는 마음뿐입니다. ‘잘’이란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주어진 업무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회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영전략, 투자 등 모든 기획 업무의 방향을 내실 경영,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 회사의 경영실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서라는 점에서 침체된 철강 경기와 수입재의 강한 도전에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장기 침체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키우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기획·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 세나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문 긍정적인 사고와 소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기획 업무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전 부서원과의 협업이 필요하죠.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만 명확한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여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이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탁상공론에 빠지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략을 수립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현업과 소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현재의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및 자세가 중요합니다.

박 항상 ‘왜’라는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료를 보며 ‘왜’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오류를 찾아낼 수 없고 잘못된 자료가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좌우명이나 신념은?

문 감사, 열정, 노력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죠. 대학 시절 수첩에 적어 놓고 좌우명으로 삼은 이후, 지금도 이 세 단어를 되새기며 마음가짐을 바로잡곤 합니다.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 문병갑 과장

이 ‘Specific goals make life easier’ 너무 많은 고민과 목적은 그릇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다가 발견한 이 문장이 지금 제 삶의 방식이자 좌우명입니다.

박 ‘욕심 있게, 과하지 않게’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사에 목표를 위해 욕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그 욕심이 지나쳐 집착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자중하려 합니다.

세아인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문 수요 산업의 부진과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으로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세아특수강은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의 일원으로서 회사 성장과 비전 달성을 위해 앞장서는 세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조직에서 나의 능력, 성과를 인정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빛깔만 좋은 개살구보다는 못생기고 냄새는 심해도 과실은 달달한 두리안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 박영준 대리

박 아직 배울 부분이 많습니다. 보다 많은 업무를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 기획 부문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업무를 배우며 더 넓은 업무 영역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아인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 드려요.

문 먼저 회사의 발전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배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좋은 일들을 위해 희망을 갖고 항상 웃으며 살아가는 세아인이 됩시다.

이 해마다 이맘때면 시간의 빠름에 놀라곤 합니다. 세아인 여러분, 남은 2016년 파이팅 하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박 날이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서나 직장에서도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멋진 세아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아제강 경영관리팀 이동혁 대리

갓 지은 집밥 같은 한 끼 식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식당 위탁 운영 업체

한빛케터링

오늘 점심에는 무얼 먹나? 직장인들에게는 날마다 끊이지 않는 고민이다. 하지만 사내 식당이 있다면 이런 고민은 말끔히 사라진다. 맛 좋은 음식을 기분 좋게 먹고 나면 그야말로 일할 맛도 나기 마련.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식당이 바로 그런 곳이다. 이곳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주)한빛케터링(대표 박명규) 덕분이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맛

오전 일과를 마친 후 점심시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임직원들이 삼삼오오 식당으로 몰려든다. 식판 가득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식당 가득 활기찬 웃음과 이야기 소리가 피어난다. <세아가족>이 오늘 찾은 곳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식당. 세아 계열사 식당 중에서도 맛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2014년 8월, 한빛케터링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식당 입찰 시 지역 업체 자격으로 참여하여 운영 업체로 선정됐다. 그 후 2년 남짓, 식당 운영면에서나 맛에서나 군산공장의 식사 환경이 좋아졌다. 세아베스틸 임직원들은 다른 시내 식당에 비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며 칭찬 일색이다.

“엄마가 내 가족을 위해 요리하듯 정성과 사랑을 담아 음식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아베스틸 임직원분들이 어떤 메뉴를 좋아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인근에 있는 유명 식당을 찾아가 먹어본 뒤 메뉴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맛의 비결을 묻자 한빛케터링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정용희 점장은 이렇게 답한다. 한빛케터링에서 운영하는 세아베스틸 내 식당은 총 5곳. 정용희 점장을 비롯하여 영양사 3명, 조리사 3명과 조리원 30명 등 총 37명의 직원이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군산공장 임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하루 네 끼니와 부식까지 세아베스틸의 먹거리 도맡아

하루에 식사는 총 4회 제공된다. 조식은 오전 5시 30분에서 6시까지, 중식은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가장 많은 임직원이 몰리는 정오 무렵이 하루 중 제일 바쁜 시간이라고. 이외에도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석식과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야식 시간에 맞춰 식사를 준비한다. 입맛이 없을 직원들을 위해 조식과 야식 시간에는 시리얼이나 누룽지도 마련해둔다. 한빛케터링 직원들은 식사 시간에 맞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세아베스틸 직원들에게 매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부서별, 공정별 작업 상황으로 인해 식사 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요청에 따라 배식 시간을 늘리기도 한다.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과 일요일 점심에는 특식 메뉴가 나온다. 담을 많이 흘리는 6월에서 9월 중에는 아이스크림과 이온 음료도 이들에 한 번씩 제공된다.

손맛과 정성이 깃든 음식 내어드리려

지금까지의 특식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메뉴는 철판 삼겹살. 수많은 직원들에게 제한된 시간 내에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사내 식당에서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메뉴다. 평소와 달리 족석에서 구워주는 삼겹살 맛에 세아베스틸 임직원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었다. 이외에도 보쌈, 프라이드치킨, 수제 돈가스 등의 특식이 반응이 좋았다.

특히 한빛케터링에서는 어느 정도 가공된 식품을 사와서 데우거나 끓여내는 어느 식당들과 달리 재료부터 직접 손질하여 전 과정을 직접 조리한다. 수제 돈가스의 경우에도 시중에 빵가루까지 입혀서 파는 제품이 있지만, 일일이 고기를 두드려 펴는 작업부터 손수 조리했다. 함께 제공한 피클도 직접 만들었다. 곰탕도 오랜 시간을 들여 푹 고아내고, 심지어 빵도 직접 반죽하여 구워낸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니 맛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더 맛있는 밥상을 위해 정용희 점장은 '직접 만드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저염식 위주로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은 더 중요하다. 한빛케터링에서는 최대한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 푸드를 식자재로 사용한다. 5대 영양소를 바탕으로 식단을 짜고, 저염식 및 MSG 사용 억제로 임직원들의



건강을 챙긴다. 올해부터는 고혈압 예방에 좋다는 생양파를 매 끼니마다 부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 보다 좋은 식재료를 납품 받기 위해 모든 식자재 공급 업체를 이원화하고 있다. 매일 아침 세아베스틸 담당자와 함께 철저하게 식자재 검수도 한다.

또한 업무지원팀 담당자 및 팀장, 노동조합 복지실장, 한빛케터링 점장 및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식당운영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열어 부족한 점은 없는지, 신 메뉴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은 어떤지를 파악한다. 직원들이 원하는 메뉴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해 식단에 적용하는 등 한빛케터링에서는 늘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은 냉장고가 건강한 식당 운영의 미(美)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하루 식사에 사용되는 쌀은 20kg 포대 기준으로 15포. 김치도 약 300kg이 사용된다. 남성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하다 보니 다른 일반 사업장에

비해 식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고. 사업장 주변에 마땅한 식당도 없어서 임직원의 99%가량이 사내 식당을 이용한다. 연장 근무를 할 경우 하루 두 끼를 사내 식당에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다 보니 한빛케터링에서는 식사 준비에 대해 더욱 철저해질 수 밖에 없다.

“작은 냉장고가 한빛케터링 식당 운영 미(美)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희 점장은 말한다. 수많은 임직원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재료가 이것뿐인가 싶을 만큼 한빛케터링의 창고에는 보관된 식품이 얼마 없다. 재고를 많이 쌓아두지 않기 때문이다. 전날 받은 식재료는 다음날에 바로 소진하는 편이다. 최대한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식당의 온도가 40℃를 웃도는 여름철에는 식중독의 위험과 식자재 변질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식당 내 실내 온도도 여름철 18℃, 겨울철 23~4℃에 맞춰 뜨거운 현장에서 땀 흘린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배식 후 남은 음식들은 모두 지정된 업체에서 가축 사료로 수거해 간다. 남은 음식이 재활용되는 경우는 없다. 끼니마다 갓 지은 밥과 새로 만든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회사의 주요 고객을 함께 맞이하는 파트너

얼마 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으로 인도에서 VIP 손님이 방문했다. 인도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정부 주요 인사였다. 그의 입맛에 맞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정용희 점장과 한빛케터링 조리사들은 아시아 푸드마켓을 찾아가 인도인을 소개받고 3일 동안 인도 음식을 배웠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 상대로 손짓 발짓을 총동원하며 요리를 익힌 이들은 꾸준한 연습과 시식회 등을 통해 VIP 손님 맛이를 준비했다.

“인도 손님이 고국에서 먹었던 음식과 흡사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며 만족해 하셨어요. 회사의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정용희 점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때 일을 떠올린다.

이처럼 해외 바이어 등의 VIP 손님이 군산공장을 방문할 경우, 한빛케터링은 특별한 정찬을 차려내기도 한다. 손님의 취향, 종교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재료를 선별하고 음식을 내어놓는 순서와 먹는 방식에도 신경을 쓴다. 세아베스틸에게 중요한 고객은 한빛케터링에도 중요한 고객이라는 생각에서다.

맛으로, 영양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

한빛케터링이 생각하는 세아베스틸 임직원들은 ‘우직하고, 뜨거운 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처음엔 무뎡뎡하고 데면데면하던 사람들도 식사 시간마다 마주치고, 날마다 인사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부쩍 친근해졌다.

“늘 맛있게 드시고, 좋은 말씀과 의견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에게 보다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신 메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세아베스틸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한빛케터링이 되고 싶다는 정용희 점장. 맛으로, 영양으로 세아베스틸 직원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한빛케터링의 있기에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잘 먹는 것처럼 오늘도 속이 든든하다.



도란도란 우리가족

가족은 세상 가장 귀하고 달콤한 열매 가을 과수원 체험

추석이 지난 후, 하늘색이 더 파랗고 선명해졌다. 높아진 하늘 위로 잠자리들이 자유롭게 유평한다. 어쩐지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아쉬운 주말, 세아창원특수강 글로벌마케팅2파트의 안현호 대리가 두 아들과 함께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배 과수원을 찾았다.

세아창원특수강 글로벌마케팅2파트 **안현호** 대리 가족



웃는 모습이 꼭 닮은 아빠와 아들

“안녕하세요.” 두 사내아이가 각뚝하게 배꼽인사를 하며 과수원으로 들어선다. 세아창원특수강 글로벌마케팅2파트 안현호 대리의 두 아들, 지우와 준이다. 선하게 웃는 인상이 아빠를 꼭 닮았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 속에서도 수줍음 없이 명랑한 지우와 준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뜻해진 가을 공기만큼이나 청량하다.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의 종류가 생각보다 그리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과수원 체험 이야기를 듣고 ‘이거다’ 싶었죠. 아이들도 ‘진짜 가고 싶다’고 해서 두 번 고민할 것도 없이 신청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나오길 잘 한 것 같아요.”

안현호 대리는 이번 체험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아쉽게도 가족 모두가 오늘 체험을 함께할 수는 없었다. 아직 어린 막내아들을 아내 김윤희 씨가 집에서 돌봐야 하기 때문. 두 살배기 서준이가 조금 더 자랄 때까지는 가족 전원이 함께하는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엄마에게 줄 제일 큰 배를 딸 거예요.”

안지우 군이 오늘의 목표를 말한다. 씩씩한 목소리도,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도 역시 장남답다. 일곱 살과 여덟 살, 한참 호기심 많은 나이의 연년생 형제는 처음 와보는 과수원이 마냥 신나는 모양

이다. 고개를 쪽 빼고 벌써부터 어떤 배를 딸지 고르느라 여념이 없다. “아래로 당기지 말고 위로 90도가량 꺾으며 들어올려야 배를 쉽게 딸 수 있어요.”

과수원 주인이 알려준 대로 따라 해보는 지우와 준이.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두 아이 모두 나이에 비해 키가 큰 편이지만 까치발을 해야 겨우 지우의 손에 열매가 닿는다. 일곱 살 준이에게 배나무는 마냥 높기만 하다. 한껏 발돋움을 한 채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준이 곁으로 아빠가 다가와 목마를 태워준다. 아빠의 어깨 위에서, 밑에서 올려다 볼 때보다 훨씬 더 크고 탐스러워 보이는 배를 향해 준이가 자그마한 손을 뻗는다.

야무진 첫째, 유쾌한 둘째, 마냥 귀여운 막내

첫째 아들 지우는 논리력과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다. 보통 아이들이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무작정 떼를 쓰는 것과 달리 지우는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설득한다. 시공간 개념도 탁월하고 손재주가 좋은 편이라 레고 등의 블록으로 복잡한 구조의 모양도 잘 만들어낸다. 미술학원에서 그려낸 그림도 ‘입체적’이란 평을 받았다. 학교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이 굳이 학교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지우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딱 부러지는 아이다. “유전은 아닌 것 같고, 아이 스스로 타고나는 재능이 따로 있나 봅니다.”

큰아들 자량이 쑥스러운 듯 멧찍은 미소를 짓는 안현호 대리. 하지만 뿌듯한 아빠 마음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둘째 준이는 ‘심플 마인드’의 소유자. 매사에 걱정이 없고 유쾌한 사차원 소년이다. 장래희망은 용감한 소방관. 혼자 놀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챙기는 다정다감한 아이이자 막내 서준이도 잘 돌봐주는 ‘착한 형아’다.

서준이는 채 두 돌이 안된 나이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아는 아이. 가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형아들을 아프게 꼬집기도 한다고. 그래도 지우와 준이는 ‘서준이가 언제 가장 귀여우냐’는 물음에 ‘월 해도 예뻐요’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아들만 셋. 손 귀한 집안이라면 마냥 부러워할 아들 부잣집이다.

공부보다는 뽀뽀이에 무게를 둔 교육

집안의 절대 ‘갑’이자 전지전능한 아내 윤희 씨와 ‘TV 채널을 바꿀 권리조차 없다’는 안현호 대리. 결혼한 지 8년째인 두 사람은 아이들을 되도록 자유롭게 키우려고 한다.

세상이 팍팍해지면서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학습 수준이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지만 부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지우나 준이가 학습지를 풀지 않아도 구태여 강요하지 않는다. ‘네가 할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몰아붙이면 더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엄마 아빠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 공부보다는 아이들의 뽀뽀이에 더욱 신경을 쓰는 편이다.



경거망동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두 아이 모두 윤희 씨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는다.

그런 가르침 덕분일까? 이곳 과수원에서는 체험에 참가한 아이들을 위해 트랙터를 태워주는데, 단체 체험객에 밀려 한참을 기다리면서도 지우와 준이는 한 번도 보채는 일이 없다. 드디어 제 차례가 오자 신나서 한달음에 뛰어갈 뿐이다.

트랙터를 타고 과수원을 작게 한 바퀴 돌면서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길, 조롱박 터널을 지난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두 아이에게는 트랙터 타는 일이 낯선 만큼 즐거운 경험인가 보다. 5분가량의 시간. 오래 기다린 것치고는 너무 짧아 아쉬울 만도 한데, 그런 기색 하나 없이 두 아이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배 수확도, 가족의 행복도 지금이 딱

“엄청나게 큰 배를 땀어요.” 지우의 제 얼굴만한 크기의 배 하나를 들고 와서 자랑한다. 아무진 성격답게 배를 씹워놓은 봉투가 뽕뽕해질 정도로 큰 것만 용케 골라왔다. 이곳 누렁이과수원의 배는 당도가 유난히 높은 것이 특징.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도 탁월하다. 배 수확 체험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햇살과 바람이 열매에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 너무 서두르지도 늦장을 부려서도 안 된다.

안현호 대리 가족의 모토(Motto)도 이와 비슷하다. ‘지금이 딱이다’. 윤희 씨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지만 그의 가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지금에 만족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지금이 딱이죠.” 나름의 기복도 있고, 짊어져야 할 것도 많지만 세 아이가 주는 행복의 크기는 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금의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안현호 대리. 아이 셋을 낳고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는 말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을 믿어주는 아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덜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냥한 가을 햇살 같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지우, 준, 서준이의 꿈이 주렁주렁 열리는 모습이 자연스레 그려진다. 비옥한 토양 위에서 자라나 달콤한 결실을 맺는 배나무처럼, 속이 짙은 단단하고 커다란 황금빛 열매처럼 말이다.

<촬영협조> 누렁이과수원 경기도 안성시 모산로 162 T. 010-9727-2607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을 밥상 햇감자 갈치조림

제철 재료로 만든 요리는 무엇이든 맛이 좋다. 추석 명절 가족끼리 둘러앉아 먹는 음식은 무얼 먹어도 단맛이 난다. 명절증후군으로 피곤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선사하겠다는 고운 마음씨까지 더해지면 이 세상 어떤 산해진미 부럽지 않은 요리가 태어난다. 세아제강 컬러강판영업팀 김상식 대리가 가족을 위해 만든 햇감자 갈치조림처럼.

세아제강 컬러강판영업팀 김상기 대리

추석을 맞이하여 내려간 고향. 부모님, 형, 동생, 형수, 조카들까지 모처럼 삼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휴가 끝나가는 토요일 저녁, 명절 음식 준비하랴 아이들 챙기랴 분주했던 가족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요리 솜씨를 발휘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햇감자도 집에 있고 명절에 기름진 음식만 먹었기에 얼큰한 갈치조림을 하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10월이 제철인 갈치에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성인병과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다고 하니 갈치조림은 그야말로 온 가족을 위한 건강 요리라고 할 수 있지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갈치조림을 종종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국민 생선’이라 불리던 갈치가 ‘다이아갈치’, ‘금갈치’라 불리며 가격이 오르고부터 밥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요리가 되었죠. 오랜만에 맛보는 갈치조림에 분명 가족들도 좋아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 요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분이 들뜨더군요.

‘갈치는 일단 커야 맛있다’는 어머니 말씀. 그래서 이번 요리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갈치는 제주 은갈치 중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외부에 상처가 없고 은색 빛깔이 반짝반짝 화려한 것이 싱싱하다고 알고 있었기에 어려움 없이 아주 튼실한 갈치를 고를 수 있었답니다.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기름진 명절 음식에 질려있던 가족들은 메뉴 선정이 너무 좋았다고 입을 모아 칭찬해 주더군요. 제 아이들에게 뼈를 발라주느라 정작 저는 애써 만든 갈치조림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감이 배가 불렀습니다. 햇감자 갈치조림은 특별히 다른 반찬 없이도 한 가지 메뉴로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간편한 요리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레시피로 세아가족 여러분 모두가 가족들을 위해 맛있고 건강한 집밥 한번 차려보시면 어떨까요? 가을에 잘 어울리는 햇감자 갈치조림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분명 행복한 밥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상기 대리의 햇감자 갈치조림



재료(5~6인분)

갈치(大) 2마리, 중간 크기의 감자 4개, 양파 2개, 홍고추 2개, 대파 2개
* 양념장 재료 :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4큰술, 설탕 2큰술, 진간장 2큰술, 다진마늘 2큰술, 다진생강 약간, 청주 약간, 소금 약간

만드는 방법



Step 1

갈치는 적당한 크기로 토막내어 내장을 제거한 후, 껍질 부분을 칼날로 긁어서 제거해 줍니다.



Step 2

감자는 씻어 껍질을 벗긴 후, 2cm 두께로 도톰하게 썰어주고 양파, 대파, 홍고추를 썰어 준비합니다.



Step 3

고추장과 고춧가루, 설탕 등 양념장 재료를 섞어 충분히 저어줍니다.



Step 4

감자를 냄비 바닥에 깔고 물 1,000ml를 부은 후, 양념장 일부를 넣고 끓입니다. 갈치를 감자 위에 얹고 양념장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Step 5

지금지금 끓을 때쯤 양파, 대파, 홍고추를 넣은 후, 중간 불에서 10~15분간 충분히 조리합니다.

TIP

생선 조림을 할 때는 생선이 포개지지 않게 올리는 것이 포인트. 약간 깊이가 있고 바닥이 넓은 팬을 사용하면 생선이 부서지지 않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세아제강

본사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

9월 30일부터 세아제강은 본사 조직 활성화의 일환으로 '와글와글 토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원 간의 유대관계 형성 및 친밀감 향상을 위해 기획됐으며, 한 조에 30명씩 4개 조를 구성하여 앞으로 3개월간 총 3번의 모임을 갖게 된다. 1주차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이름 외우기 게임, 2주차부터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게임 및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된다. 세아제강은 앞으로도 조직 활성화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아 FS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8월 26일, '201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세아 FS가 선정됐다. 1996년부터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시작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도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 및 포상하는 제도이다. 이날 평택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최한 인증서 전수식에 참석한 이동하 공장장과 서민형 위원은 상생의 동반자로서의 가치 공유를 다짐했다. 또한 오는 12월에 예정된 '2016년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수상도 확정 지으며 노사 상생기업으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세아베스틸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8월 8일, 세아베스틸은 군산경찰서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4대 사회악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 강구,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한 4대 사회악 근절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태완 노조위원장은 '4대 사회악 근절 지원 등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아 ESAB

Colfax / ESAB CEO 방문

8월 23일, 콜팩스(Colfax) 최고경영자 Mathew Tretolera와 ESAB 최고경영자 Shyam Kambayanda가 세아 ESAB를 방문했다. 이들은 생산 현장을 돌며 세아 ESAB과의 상호 기술 교류를 통한 시너지 확대 및 공동 이익 증대를 위한 시장 기회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세아 ESAB는 이들 업체와의 끊임없는 협력을 바탕으로 선진 기술 도입과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의 종합용접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아창원특수강

제1회 기술부회 실시

9월 29일, 세아창원특수강은 창원공장 사무동 교육장에서 기술연구소 및 생산부서 직원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기술부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부서 간 상호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으며, 생산 관련 부서에서 하나의 테마를 선정하여 이론 및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세아창원특수강은 기술부회를 분기 1회로 정례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세아 M&S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

8월 30일, 세아 M&S는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다. '상호 신뢰'를 노사 관계의 큰 화두로 정립시키고 시작한 입단협은 상견례부터 총 10차례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에 이르렀다. 마정락 대표는 세아 M&S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좋은 결과를 맺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세아홀딩스

결혼
문창희 재경파트

세아제강

입사
공희경 창원 업무지원팀
원태연 창원 품질경영팀
이소라 포항 업무지원팀
이호용 창원 생산팀

결혼
이광표 수출2팀

출산
도희진 부산 STS영업팀
박형우 포항 공장혁신팀
유한열 군산 품질경영팀
이준혁 포항 생산3팀

조의
김석일 해외영업담당 임원(모친)
최진희 포항 물류팀(부친)

세아베스틸

입사
김현진 글로벌마케팅팀
백경륜 글로벌마케팅팀
조기연 글로벌마케팅팀
이다은 기획팀
이동준 회계팀
이재훈 구매2팀
김호진 연주팀
박신현 제품연구센터
안현수 공정연구센터
조민수 품질보증팀

결혼
김기오 연주팀
김보람 구매팀
김윤성 압연설비팀
김준구 연주팀
김준호 연주팀
오병준 품질보증팀

조의
김용일 강관단조설비팀(부친)
김진희 강관단조팀(모친)

조은애 품질보증팀
황연희 연주팀

조의
김선규 연주팀(장인)
노현교 품질보증팀(모친)
박한구 압연설비팀(장인)
신덕환 소형압연팀(장인)
신정남 소형압연팀(부친)
안병용 단조생산팀(모친)
위병열 제강팀(장모)
유덕운 제강설비팀(장모)
유해광 일반단조팀(장인)
이제열 안전환경팀(장모)
이종건 제강팀(장모)
임대성 구매팀(모친)
정상현 글로벌마케팅팀(장인)
조상수 제강팀(부친)
채귀삼 대형정정팀(모친)
최윤영 부산영업팀(부친)
홍성일 압연설비팀(장인)

세아창원특수강

결혼
김성순 QM파트
김수택 영업1팀
박종하 압연설비팀
배신우 선재파트
임지홍 재무팀
홍기태 품질보증팀

출산
김현수 공정연구2그룹
박철욱 제강팀
서민혜 인재운영팀
신청수 인재운영팀
안덕중 인재개발팀
이승원 강관단조팀
전영철 생산관리팀
정구열 가공팀
최동수 가공팀
최정권 강관단조팀

조의
김용일 강관단조설비팀(부친)
김진희 강관단조팀(모친)

박종혁 제품연구1그룹(모친)
박홍일 강관단조설비팀(부친)
손준식 수입검사팀(모친)
최윤영 부산영업2팀(부친)

세아특수강

입사
박소이 포항 업무지원팀
백인영 서울 경영기획팀
심재영 충주 안전환경설비팀

출산
김근우 포항 생산팀

조의
손승재 포항 생산팀(장인)
오희수 충주 품질보증팀(조모)
정연학 포항 생산팀(부친)
조인제 서울 봉강영업팀(조부)

세아 FS

결혼
남운성 품질보증팀

출산
박현철 자동차가공/선형개발팀
이정호 가전개발팀
전영관 생산팀
최갑식 생산팀
최규환 생산팀
최성운 구매팀

조의
김기혁 중국총괄(모친)
박준우 경영관리팀(조모)
이정록 중국청도법인(부친)

세아 ESAB

결혼
차경호 제품개발팀

출산
최기택 생산팀

조의
김주병 제품개발팀(부친)
임희대 제품개발팀(장인)

세아메탈

결혼
승상일 원주 생산설비팀

세아 M&S

조의
최준혁 물류운영팀(조모)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성주현 개발1팀
안아람 개발2팀

결혼
서윤정 영업팀

출산
고민우 개발2팀
류희상 개발3팀
유정하 품질보증팀

조의
민경후 생산팀(장인)
서건호 영업팀(부친)
최 화 영업팀(부친)

세아 L&S

입사
마승연 서울영업팀

결혼
백성수 판재영업1팀
신유철 판매기획팀
양정근 당진공장

출산
차형범 당진공장

Post Box 독자참여

Reader's Letters

세아 가족 여러분이 지난 호 <세아가족>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신입사원 그룹 교육에 대한 기사를 보며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라는 생각에 잠시 회상에 젖었습니다. 앞으로 세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열정적인 새내기 세아인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춘성

세계 속의 세아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해나가는 세아인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이런 세아인들이 있기에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되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업, 글로벌 No.1 세아가 되는 그날까지 정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

테마 칼럼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고객 중심 경영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보니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한다면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도태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회사 소식뿐만 아니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오수영

고객을 중요시하지 않는 기업은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세아만의 정직한 품질과 뛰어난 실력으로 강관과 특수강 분야에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회사가 되길 응원합니다.
최민규

'행복 레시피' 코너에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무더운 여름, 전복 삼계탕을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저에게까지 설렘이 느껴지네요. 일도 사랑도 최선을 다하는 세아 가족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아 가족 파이팅!
하상용

회사의 전반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세아가족> 사보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며 재미있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듬뿍 전달하는 사보 기대하겠습니다. 세아인으로서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현상

<세아가족> 사보기자

고은비	세아제강 인사운영팀(본사)
이병준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현구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김재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판재공장)
강태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강관공장)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순천)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본사)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군산)
허지윤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서울)
박소현	세아창원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류상우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김유현	세아 FS 인사팀(서울)
장소라	세아 FS 업무지원팀(평택)
윤서연	세아 FS 업무지원팀(광주)
장영원	세아 ESAB 경영지원실
신상호	세아메탈 경영기획팀(서울)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이상진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
이상기	세아 E&T 경영지원팀
김재홍	세아 M&S 경영지원팀
김미희	세아 L&S 재경기획팀

Quiz

<세아가족> 9+10호를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자

이춘성	서울 구로구 경인로
이원상	전북 김제시 백산면
오수영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최민규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하상용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박현상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Q1 세아제강 포항공장에서 생산하는 세계 최장척 24인치 고강도 송유관의 길이는?
1. 60피트 2. 70피트 3. 80피트 4. 90피트

Q2 지난 9월 30일, 세아의 차세대 리더 양성 과정 '2016 챌린지 리더 과정' 수료식을 마친 인제는 총 몇 명일까요?
1. 21명 2. 22명 3. 23명 4. 24명

Q3 9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6 국제철강 금속산업전'에 참여한 세아의 전시 콘셉트는?
1. 세계로 미래로 2.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3. The Steel Wave 4. World Premium

💬 사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책 등을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hyunho.lee@seah.co.kr / 02-6970-0095



We are passionate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세아의 열정에 한계란 없습니다.

아시아, 북아메리카, 중동,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을 개척하며

앞선 기술과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는 철강소재 전문기업, 세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SeAH

세아인은 **정직, 열정, 실력**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아홀딩스 • 세아제강 • 세아베스틸 • 세아창원특수강 • 세아특수강 • 세아FS • 세아ESAB • 세아메탈 • 세아M&S • 세아엔지니어링 • 세아L&S • 세아네트웍스